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함께 지어갑시다 [느헤미야 3]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야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다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8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 하루압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합모압의 아들 핫숨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13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일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14 분문은 벵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15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16 그 다음은 벵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7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왜가 중수하였고 19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굽이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20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굽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1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2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23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4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굽이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25 우새의 아들 발랄은 성 굽이 맞은편과 왕의 뿔 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26 (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 27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8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밍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32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 설교본문 중 몇몇 장들은 읽는 것을 지나치고 싶은 충동에 빠집니다. 특별히 많은 이름과 지명들이 거론되는 장 같은 경우엔 왜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의아해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함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16). 오늘 설교본문은 교회를 다시 세우고 강하게 하는 것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1, 건설자들의 다양성: 우리는 보통 자격이 있는 건설자가 우리의 건물을 짓도록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의 성벽과 문들을 재건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자와 여자, 가족 단위의 사람들, 정치가들, 제사장들, 스승들 그리고 상인들과 대장장이들 등등. 이 모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의 핵심단어는 수리입니다. 이 단어는 29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된 것은 어떤 것을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를 다시 강하게 세우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교회를 강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강하게 하기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2, 많은 건설자들의 필요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분명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입니다. 오늘 설교본문에서 41명의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 재건 사업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곁에서 성벽의 재건을 돕고 협력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벽재건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교회는 몸이란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없다면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건설자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3, 무명의 건설자들: 여러분은 오늘 언급된 건설자들의 이름 중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멜라티아(오늘 언급된 건설업자 이름 중 한 명)나 멜치야의 수제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성벽재건을 위해 사용된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벽재건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요점은 이 사람들의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그들의 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분의 왕국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든 기저귀를 가는 일이든 말입니다. 이번 장을 통해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최고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니다.

4, 겸손한 건설자들: 대제사장들조차도 재건을 위한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임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높은 정치가들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도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건설현장에서 손이 더러워지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낮아져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분은 왕이셨으나 교회의 재건을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명(예수님과 같이)으로 일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한 우리의 일들을 통해 자신 스스로 주목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투영시키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그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지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 된 교회. 이 목표를 향해 다함께 나아갑시다.